

포천사회 知識人 ㉔

경북대학교 김 승 배 교수

포천 近代건축 연구활동 계획

초등학교 건축물은 地域의 특성을 살려야

“근대건축의 보존, 활용이 아이디어개발,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docomomo korea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근대건축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학 건축과 김승배(45·사진)교수는 1997년에 경북대학에 부임해 설계, 건축이론, 디자인이론, 건축역사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흑석동 을로 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택, 종교시설인 성당건축을 주로 설계해 온 김 교수는 근대건축을 전공하였으며 관심분야는 근대건축 보존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구인 docomomo korea를 일본보다 앞서 2003년도 개설하고 이사겸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코모모(DOCOMOMO)란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vement'의 약자로 '근대운동에 관한 건물과 환경형성의 기록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도코모모는 1990년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아인트호벤 선언 'DOCOMOMO'헌장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직 민간단체다.

DOCOMOMO Korea는 2003년5월2일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출범하고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공간사옥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문화재청에서 2004년1월에는 제주도에서 각각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경북대학 그린캠퍼스 책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교건축에 관여했으며 교육시설학회 논문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건축물을 조사하고 연구논문 발표 한 바 있다. 초등학교 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 교수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건축물조사연구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포천지역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김 교수는 포천 문화원 창고에 쌓여 있다는 자료를 열람하여 근대건축물 관련된 사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천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할 때도 김 교수가 참여했다.

경북대학 건축과는 1993년 신설됐으며 매년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전공은 공학과 디자인으로 나뉜다. 공학은 30%, 디자인은 70%에 이른다.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은 설계사무소, 공학에 전공한 학생들은 시공회사로 취직하게 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보고 싶다'는 좌우명으로 어떤 일이든 도중에 그만둔 적은 없다. 꼭 하나의 결말을 보는 스타일이다. 요즘 학생들은 전공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입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김 교수는 (주)한국환경 종합건축사, 우리공간 건축연구소, (주)환경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일할 당시 광주 교구 영암성당, 광주 진월동 성당, 서울 목동 성당, 서울 낙성대 성당, 서울 약현 성당 교육관, 서울 석촌 성당, 전주교구 고산 100주년 기념성당, 전주 호성동 성당, 부천 상동성당, 전주 송천동 성당, 울진 북면성당, 의정부 신곡2동 성당 등 종교시설을 주로 설계했다.

또 상업시설로는 부국상호신용금고 본점, 청담동 유경갤러리를 설계했으며 도시계획으로는 대전 둔산지구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마스터플랜은 경북대학 신캠퍼스 계획, 북서울 대학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안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 교수는 앞으로 포천의 근대건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근대도시가 발달해 가는 과정을 연구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청 용역으로 철원지방의 자료를 목록화 하고 있다.

또 학교시설 또한 양극화보다는 각 지역의 분위기에 맞도록 제안하고 싶다고 한다.

김 교수는 1997년 경북대학에 부임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교육학회 편집위원, 건축역사학회,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관리공단 설계자문위원의 건축분야 기술위원, 경기도 제2하수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포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김교수는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근대건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요 논문·저서·용역은 다음과 같다.

- ▶단지계획수법(1998.12 번역서)▶한국가톨릭수도원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1989.10, 석사학위)▶근대 일본 카톨릭 성당건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7.4, 대한건축학회 논문)▶근대 중국 개항지 성당건축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7.8 대한건축학회 논문)▶근대 동북아시아의 서양문화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1998.9 경북논총)▶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건축 수용에 관한 연구(1999.8 박사학위)▶수도권의 중소설계사무소를 위한 설계 진행과정 모형 및 설계데이터베이스 개발(2002.7, 한국과학기술원 산학협력지원과제)▶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초등학교 건축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003.5 교육시설학회 논문)▶건축설계제도·프리젠테이션(2005.3 도서출판 지음)▶근대건축물 수리 기초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공동용역(2006.3 문화재청)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지역내 근대건축물 調査·研究 爲해 努力

취재파일 한탄강 댐 건설 다목적용으로 하라

홍수조절용 건설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황폐화 우려

현지사정 고려 않고 국내 첫 홍수방지 댐 시험용으로 건설



본지 취재국장 하승원

그동안 우려곡절을 겪어 온 한탄강 댐 건설 문제가 지난 8월22일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

한탄강 댐은 연천을 고문리에서 포천시 참수면에 이르는 지역으로 길이 705m, 높이 85m, 저수용량 2억100만 m³ 등이다.

한탄강댐을 건설하게 된 것은 96년과 98년, 99년 8월에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사상 유래없는 홍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부터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2000년12월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용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기본설계를 마쳤다.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철원군과 연천군, 포천군 주민들은 댐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댐건설 재검토 입장을 표명해 2004년5월 청와대에 한탄강댐 갈등조정소 위원회가 구성되고 16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자 2005년1월과 2월에 한탄강댐 건설계획 및 추진 실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2005년8월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갈등조정업무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차례 심의 끝에 2006년8월22일 한탄강 댐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다목적용으로 건설하겠다는 한탄강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기능을 바꾼 것이다. 단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포천시와 철원군, 연천군 주민들 대다수는 처음부터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해 왔다. 물론 일부 보상금과 관련해 댐 건설을 찬성해 온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현재도 철원군 주민들은 홍수조절용이던 다목적용이던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기왕 댐을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탄강 댐 건설의 문제점

한탄강댐을 건설하게 되면 댐이 다목적용이던 혹은 단순 홍수조절용이던간에 자연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다. 물론 지질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큰 공익을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은 당연한 이치다. 한탄강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략 1조원의 투자해 댐을 건설하고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한다는 것은 경제투자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댐 건설로 340만평의 농토까지 수장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 할 수 밖에 없다.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한다는 것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로 수물지역은 황폐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댐 건설에 따른 전체 수물면적 15.3km² 가운데 포천지역은 11.32km²(342만평)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댐 건설에 따른 정비사업비 지원은 총 500억원 가운데 포천시에 300억원, 철원군 100억원, 연천군 100억원 등이다. 이같은 정비사업비 배정은 댐 법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의 인구나 교통, 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는 규정을 들고있다.

그러나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할 경우 담수지역 쓰레기 및 퇴적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고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할 경우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생긴 쓰레기 처리는 고스란히 포천시의 몫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포천시에 지원되는 300억원의 정비사업비는 그야말로 포천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한탄강 댐 건설 방향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수물지역 군부대 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국방부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만 담수해야 한다는 조건부 군동의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강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고만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에도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면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한탄강댐 건설에 관해 9년여 동안 찬반으로 나누어 갈등을 빚고 있으나 포천시는 그동안 대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탄강댐이 건설됨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수자원공사와 기본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철원군과 연천군 등과 공동조사 등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풍산 그라비아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POONGSAN GRAUVRE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공 제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